

내밀기 부끄러운 출판영업인의 명함

정순구 | 역사비평사 마케팅팀장



“올 하반기에는 출판시장에서 IMF보다 더한 대란이 올 것이라고들 한다. 또한 변화된 출판환경은 새로운 영업자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른 자기혁신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명함 내미는 손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71.7세, 여자가 79.2세라고 한다. 50년 전보다 10년 이상이 늘어났다. 반면 또 다른 통계로, 한국 셀러리맨의 수명(근무기간)은 대기업 기준으로 통상 30년이었는데 최근 구조조정 등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15년으로 단축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출판인들, 특히 영업인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얼마나 될까? 통계수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옮겨 근무한 출판사를 다 더해도 10년을 넘지 못하리라는 게 내 생각이다. 실제로 영업자들의 모임에서는 마흔만 되면 원로 대접을 받는다.

사회에서 홀대받는 출판영업자 경력

일전에 한일관계사에 관한 책을 출판할 때 일본사를 전공한 저자가 들려준 일화는 새롭다.

일본에 한 노인이 있는데 그는 매우 가난할 뿐 더러 사회적으로도 이름을 내세울 만한 아무런 직함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식인 사회 어디를 가도 당당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환영받고 존경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유명 출판사인 고단샤(講談社)에서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 사람의 명함에는 ‘전 고단샤 근무(前講談社 勤務)’라는 경력이 자랑스럽게 찍혀 있었다. 물론 편집자였지만 좋은 출판사에서 오래도록 근무했다는 경력이 새겨진 명함 자체가 자신에게는 커다란 자긍심이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규정해주는 ‘보증수표’인 것이다. 정말 부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출판인들의 자질과 자존심도 일본의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을 텐데, 우리는 과연 그만큼 자랑스러워하는가? 출판사에 근무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전직한 사람들은 출판사의 영업경력이 경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더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한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해도 직업을 묻는데, 이럴 때도 참 난감하고 당혹스럽다. 직업군을 선택할 때 어디를 찾아봐도 출판(영업인)은 없다. 하는 수 없이 ‘기타’를 선택하지만 기분은 씩씩하다. 출판영업인은 직업도 아니라는 말인가?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명함을 내밀면 심중팔구 돌아오는 대답이 “아파트 돌아다니려면 참 힘들겠다...”는 위로다. 출판사 영업부장이면 으레 방문판매자쯤 되는 줄 알고 있다. 최근에는 정가제에 관한 내부 분과관 이른바 사재기 파동으로 출판사 명함을 내놓기가 더욱 부끄러운 실정이다. 아프지만 우리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출판영업자들은 왜 이렇게 조로(早老)하고 정체성이 모호할까?

출판사의 영세한 재무구조와 전근대적인 출판유통구조, 그 외에도 출판계가 처한 여러가지 한계 상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내부에서 요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영업자의 ‘오너 마인드’ 부재가 정체성의 위기 불러

물론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영업인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영업부장이 갈린다’는 속설이 있다. 그것은 두 가지 경우다. 첫째, 베스트셀러를 한번 낸 출판사 사장은 눈높이(기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이후에 나오는 책들에 대해서도 그 책의 품질(Quality가 아닌 Value)과는 무관하게 높은 판매실적을 요구하게 되고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영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다. 둘째는, 베스트셀러를 내본 경험이 없는 출판사에서 특히 그런데, 영업자가 커진 시장규모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되는 경우다.

두 경우 다 문제는 본원적으로 영업자의 ‘오너 마인드’ 부재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영업자는 물론 책을 ‘파는’ 사람이다. 하지만 바로 그 ‘파는’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전제인 ‘만드는’ 작업에서 영업자의 결정적인 역할과 임무가 있다. 그건 자신 스스로가 경영자라는 생각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올 하반기에는 출판시장에서 IMF보다 더한 대란이 올 것이라고들 한다. 또한 변화된 출판환경은 새로운 영업자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른 자기혁신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명함 내미는 손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어딜 가나 자랑스럽게 출판영업자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게 곧 출판 선진국이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대문호 프란츠 카프카가 남긴 일갈이 우리 출판인들의 임무를 대변해준다. “우리 머리에 주먹질을 해대는 책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런 책을 읽어야 한단 말인가.” ■

정순구씨는 백산서당, 당대출판사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역사비평사에서 일하고 있다.